

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 비언어(非言語) 커뮤니케이션

일본인과의 관계에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넘어서 그것을 둘러싼 문화적 소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눈짓, 몸짓 같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언어 그 이상으로 의사전달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

□ 언어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써 소통

- 일본사회에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몸에 배어있는 예의나 동작이 사회구성원간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러한 경향은 다민족 혹은 이민사회로 구성되는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특징임
 - 서로 주고받는 눈짓 혹은 몸짓과 같은 행위가 서로 주고받는 언어 그 이상으로 의사전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됨
 - * 가정에서 사회에 이르는 폭 넓은 인간관계를 통해 상대가 전하고자하는 진정한 뜻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말과 말 사이의 침묵과 생략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 공(公)과 사(私)의 경계에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대결구도를 회피하기 위해 입을 닫는다든지 본심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동의하는 경우가 있음
 - 어떤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심과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

□ 몸짓 속에 숨어있는 언어와 생각

- 누군가를 만났을 때 취하게 되는 행동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일본에서 동작만으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인사하는 방법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인사로 오지기(お辞儀, 허리를 굽히며 하는 인사)가 있으며 악수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인사의 깊이에 따라서 상대와의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를 표현하기도 함
 - * 오지기에는 서서하는 리쓰레이(立礼)와 앉아서 하는 자레이(座例)가 있으며, 상대에게 무언(無言)으로 표시하는 예의의 깊이에 따라 사이케이레이(最敬礼), 케이레이(敬礼), 에샤쿠(会釈)가 있으며 오지기라는 인사법은 자신의 목을 앞으로 내밀어 상대에게 적의가 없음을 표현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음
- 그리고 레이산소쿠(礼三息)라는 말이 있는데,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천천히 굽히고, 멈춘 곳에서 숨을 내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을 뜻함
 - * 이러한 인사법은 상대에게 매우 정중한 인상을 주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함
- 말이 아닌 인사하는 행동으로 지위의 높낮이를 표현하고 상대와 교감을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의 이미지 설정이 가능한 악수와는 전혀 다른 인사문화임
- 대화하는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일본사람들의 무언의 행동특성을 하나 더 꼽는다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는다는 것임

- 일본어로 자기보다 연령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메우에노히토(目上の人)라고 하는데 자신의 눈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임
- 그렇기 때문에 대등하게 눈을 마주보면 실례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접할 수 있으며 상대를 자신보다 우위에 놓고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기 위한 일본사람의 심리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음
- * 이러한 일본사람들의 침묵과 무언의 행동이 같은 일본인은 물론 이질적 문화권의 사람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음
- 말수가 적다는 뜻은 일본어로 쿠치가즈가 스쿠나이(口数が少ない) 또는 무쿠치(無口)로 표현됨
- 한자 뜻 그대로라면 입의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입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
- 침묵과 무언의 행동으로 통하는 일본사회에 입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본의 미래일 것임